

노인부양의 현실과 그 새로운 방향: 1990년대 연구를 중심으로

The Realities in the Elderly Caregiving and Its New Direction: Revisiting Caregiving Researches in the 1990s

신라대학교 가족학과
강사 손태홍

Department of Family Studies, Silla University

Lecturer: Taehong Soh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요약 및 논의 |
| II. 노인부양에 관한 선행연구의 분석방식 | V. 결론 및 제언 |
| III. 선행연구의 고찰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paper reviews researches related with the elderly caregiving, which have published during the 1990s. After analyzing the 29 articles in this fiel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dvantageous position in life chances which is consisted of socioeconomic status and resources tends to reduce the burden for the elderly care. The higher in social status, the more resources older adults have, the more advantageous in controlling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and caregivers. Second, values based on familism is more associated with providing caregiving services for their parents than those of filial piety. Third, the tendency that daughter-in-law takes the role of the primary caregiver suggests a possibility of diminishing her enthusiasm, and finally comes to recognize her role as an enforced one, as time goes by. Fourth, caregiving burden affects the diverse aspects of caregiver's way of life. When the lower class elderly has dementia, caregiving stress and hassle have reached at their peak level. For meeting the needs of reducing the burden for the elderly care, this study suggests community-based approach for the elderly care. This approach attempts to share the caregiving burden with local community. To share the burden means that the boundaries of caregivers does not limit family members, but to expand community. This attempt includes a plan that establishes a multipurpose community center which provides comprehensive services and care for the aged. The theoretical rationale of this approach are also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노인 부양부담(caregiving burden for the elderly), 생활기회(life chances), 지역사회 중심 접근(community-based approach)

I. 서론

컴퓨터와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로 대표되는 인터넷과 정보사회의 도래라는 급격한 사회변화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기준과 내면화된 가족관은 변화되기 어려운 지체(遲滯)현상을 보인다. 물질문명 발달의 속도에 비해 우리의 가족문화는 그 구성원의 삶의 질과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서 확립되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의식은 아직도 가족 구성원의 생활양식과 행동을 결정짓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대별로 보면 성장기에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을 가족 가치관의 하나로서 내면화 해온 현재의 40대 이상의 중년세대는 젊은 신세대 부부보다 상대적으로 노부모 부양을 더 많이 담당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노인을 부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적 조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부모들은 오히려 성인자녀를 도와주어야 하는 위치가 되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조부모는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 중요한 가족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다른 한편의 연구에서는 노인들 스스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해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지적한다(홍숙자, 2001). 경제적 여건만 허락된다면 자식과 별거하겠다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자녀에게 의존하겠다는 기대도 감소한다(김미경, 2000). 또한 이러한 현상은 자식들이 노인들을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충분히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도가 없음을 노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홍숙자, 2001). 이러한 모든 경향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노인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간다는 것을 나타낸다(김경신, 1997).

그러나, 아직도 성인자녀들이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있어서 부양부담감을 여전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부양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부

양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성인 자녀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 갈등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이런 부양 부담감의 근저에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현대 한국가족 내에서 부양부담감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작업은 본 연구의 중요 목적 중의 하나로서, 현재에도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은 여전히 현재의 한국가족 구성원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부양부담감과 연관된 사회적 배경, 가족 생활양식 등도 함께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부양부담감을 극복하고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 구성원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양성평등, 개인주의 가치관,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희생과 순종에 적응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두 가지 측면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문화는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본 연구는 노인부양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접근방식은 노인부양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와 가족이 분담하는 방안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집단주의적 성격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과도한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국가와 지역사회가 노인 부양의 일부를 담당하게끔 하는 기본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적 원망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회적 요구이다. 이러한 관점은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들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의식은 성인자녀의 노인부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의식이 노인부양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는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노부모 부양부담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최근 1990년대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부양부담감 유발요인들을 추출해내고자 한다. 세 번째 질문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들에게는 이러한 부양부담감을 덜어주고, 동시에 노부모들의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보살핌(care)의 욕구를 다소나마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때까지 가족의 부양능력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해왔던 노인부양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탐색해 볼 것이다.

II. 노인 부양부담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분석방식

노인 부양은 가족학, 노년학, 그리고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다학제적인 성격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학술지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가족학 분야의 학술지로는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노년학 분야는 “한국노년학”과 “한국노년학 연구”, 사회학 분야는 “한국사회학”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에 실린 논문들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최근의 연구성과를 보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로는 지난 1990년대는 노인부양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사회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시기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크기 및 기능의 축소, 맞벌이 부부의 증가,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 그리고 개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정보사회로의 진입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1990년대의 노인부양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노인부양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미흡한 우리 사회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시기적절한 시도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에는 노인부양에 대한 보다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기 때문이다.(<표 1 참조>) 보양보상

감,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상호교류, 그리고 와병상태 특히 치매노인 부양 등의 주제들은 1990년대 이전에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들이었다. 이러한 주제들을 분석하는 의의는 노인문제나 노인부양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로 간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하는 주요 관심사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기준에 따라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주제와 조사대상자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¹⁾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는 부양부담(24.2%)이며, 그 다음이 와병상태의 부양부담(15.2%)이었다. 노인을 부양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분석한 연구논문이 가장 많았고, 치매나 신체적으로 질환이 있는 경우의 부양부담을 다룬 논문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빈번한 주제가 가족주의 가치관(12.1%)인데, 가족주의 가치관 그 자체만 분석한 것이 아니고 부모부양의식이나, 부양부담과의 관련하에서 분석되었다. 즉, 내면화된 가족주의 가치관이 노부모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 혹은 부양부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되었다. 주제 중 또 하나의 흐름은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에 일어나는 상호지지에 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노부모는 부양의 일방적인 수혜자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손자녀를 돌보고 가사 일을 도와주는 역할도 담당하여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상호교류가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노부모와 동거할 때의 만족도를 분석하거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감을 다루기도 하였다.

조사대상자를 중심으로 보면, 부양자가 가장 많은 비율(42.4%)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특성상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법은 자료수집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부양자와 피부양자(노인)를 동시에 조사한

1) <표 1>에서는 주로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만 대상으로 하였다. 학위논문들은 부득이 제외하였다. 자료취득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제외의 주된 이유이나, 동시에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표 1〉 1990년대에 이루어진 노인부양에 대한 연구의 분류

주 제		조사대상자	
효	3 (9.1%)	피부양자(노인)	3(9.1%)
가족주의	4 (12.1%)	부양자	14(42.4%)
부모부양의식	3*(9.1%)	부양자+피부양자	6(18.2%)
부양부담	8 (24.2%)	대학생	2(6.1%)
와병상태의 부양부담	5 (15.2%)	농촌기혼여성	1(3.0%)
부양보상감	1*(3.0%)	문헌연구	3(9.1%)
부양스트레스	4 (12.1%)	합 계	29(100.0%)
상호지지	3 (9.1%)		
부양유형선호도	1 (3.0%)		
동거만족도	1 (3.0%)		
합 계	33 (100.0%)		

*: 중복분류

연구가 전체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주부양자와 노인 모두가 조사대상자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주부양자는 며느리, 배우자, 그리고 성인자녀들이다. 이외에도 농촌에 거주하며 노부모를 모시는 여성을 연구하거나 대학생들이 노인 부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조사대상자가 없는 이론적인 연구는 3편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였다. 모든 연구가 조사대상자들을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게 골고루 뽑은 확률표집방법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한 두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에서 나온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

III. 선행연구의 고찰

1. 전통적인 의식과 노인부양간의 관계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의식은 효 의식과 가족주의의 가치관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효 의식은 한국의 가족에게는 매우 뿌리깊은 의식이다. 효도는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인들에게는 하나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내면화되어 있다. 이러한 뿌리 깊은 내면화의 배경에는 집권층이 효행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써 강조한 것에서 유래한

다. 전통적으로 효행자들은 가족의 화합을 이루어 낼뿐만 아니라, 이웃과 노인들까지 돌보았다(성규탁, 1989). 따라서 효행은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데 기여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유대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질서 유지로 이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가족은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므로, 가족의 안정은 사회의 안정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으로서 효도의 수행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효의 강한 영향력은 또 다른 측면에서 발견할 수도 있는데, 서선희(1998)는 이를 “효의 종교성”에서 찾고 있다. 내세와 절대적 초월자가 없는 유교사상에서는 이러한 공백을 개인의 생명과 생명을 연결 지어서 메우려 한다(서선희, 1998). 유교는 조상과 나 그리고 후손을 연결지음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조상의 대를 잇는 것뿐 아니라 나의 생명도 후세를 통해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부모는 단순히 육체적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 존재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과 무관하게 낳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에게 보은하고 감사해야하며, 여기에서 효의 일방성과 당위성을 찾아 볼 수 있다(서선희, 1998). 이러한 맥락에서 효는 상호호혜성을 띄는 윤리가 아니며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리를 강조하는 일방성을 보여준다.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효는 가족간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자녀관계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효에 관한 가치관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효 수행에도 적극적이다(김경신, 1997).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항상 성립되지 않는다. 조병은과 신화용(1992)의 연구에서 딸과 며느리가 노부모로부터 받는 보상이 클수록, 효 의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모와의 사이는 친밀해지고 관계의 질은 좋아졌다. 효 의식과 보상이 각각 독자적으로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노모로부터 받은 보상의 영향력이 효 의식 보다 상당히 크다. 여기에서 노모로부터 받은 보상은 자녀양육시 도움 같은 것인데, 이러한 보상도 노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딸 혹은 며느리가 지각하는 보상도 증가하게 된다(조병은·신화용, 1992). 따라서 이 결과는 성인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관계에서도 상호호혜성에 기초한 교환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효 의식의 독자적인 영향력은 제한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효의식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이데올로기의 하나로서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적인 하나의 믿음체계(belief system)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서비스간에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성인 자녀, 특히 며느리일수록, 노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많고 부모부양의식도 높은 편이다(김송애·조병은, 1991; 최정혜, 1998). 그러나 실제 경험적인 연구에서는 부양하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고, 노인의 자원이 많을수록 오히려 가족주의 가치관은 감소되는 편이다(김송애·조병은, 1991; 한은주·김태현, 1994; 최정혜, 1998). 여기에서 노인의 개인적 자원은 건강상태나 배우자의 생존여부 등을 말한다. 노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였을 경우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아지는 것은 노인들의 의존감, 기대감이 증가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한은주·김태현, 1994). 이와 더불어 시부모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양만족

도와 부적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즉, 시부모가 가족주의 가치관을 더욱 선호할수록, 시부모가 인식하는 부양의 만족도는 감소된다(한은주·김태현, 1994). 이 결과가 제시하는 의미는 노인들은 표면적으로는 근대적인 가치관을 수용하는 것 같아도, 심리적으로는 과거의 관념을 고수하고, 자식들로부터 효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한은주·김태현, 1994).

가족주의 가치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또한 앞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교육의 경우, 가족주의 가치관과 일관되게 부적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계속 향상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족주의 가치관에 미치는 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향은 대학생에게서도 나타난다. 대학생들도 효사상의 영향으로 부모 부양의식은 높으나, 가족주의 가치관은 낮은 편이다(이은경, 1999). 구체적으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가족주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으며, 노인의 섭섭함을 풀어들이고 대화에 응하는 등의 정서적 부양의식에 있어서도 남학생에 비해 다소 뒤진다(이은경, 1999).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취업과 더불어 21세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을 더욱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이은경, 1999).

위에서 다루어진 선행연구의 결과는 효 의식보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실제로 부모의 부양을 떠맡는 결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을 지지할수록 실제로 노인을 부양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에 비해 효 의식은 사회적 규범에서 오는 당위성과 사회적 선호도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인부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부분은 효의 실천 여부는 상관없이 효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좀 더 집단주의적 속성을 요구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지지하는 비율은 낮다. 다시 말하면, 효 의식은 하나의 규범적 요소로서 사람들의 의식에 깊이 내면화되어 있으나, 실천적 요소로서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력은 줄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2. 노인부양의 분석관점으로서의 생활기회 (life chances)

생활기회는 경제적 재화,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확률과 관련된 기회를 의미한다(Ritzman & Tomaskovic-Devey, 1992). 즉, 생활기회는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경제적 재화 혹은 문화적 자본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Giddens, 1980). 예를 들어, 이러한 생활기회의 차이는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성격의 생활기회는 인종, 성, 그리고 부모의 사회계층상의 위치,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과 같은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Ritzman & Tomaskovic-Devey, 1992).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노인부양과 관련된 사회적 조건들도 이 생활기회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배우자 생존여부, 자녀와의 동거여부 등과 같은 노인부양과 관련성이 큰 사회적 조건들은 바로 노인의 생활기회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기회의 개념을 노인부양의 현실에 좀 더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원래의 개념에서 다소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생활기회는 노인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처전략과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적 조건은 노인부양을 위한 대처전략에 선행하여 존재하며, 노인 본인이나 그 가족이 처해 있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건강과 같은 자원소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배경을 일컫는다.

이러한 정의에 맞게, 본 연구에서는 생활기회를 세 가지 측면에 걸쳐서 고찰하였다. 이 세 가지 측면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노인의 와병상태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노인 본인과 부양자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맥락을 잘 반영한다. 부양자들이 속하는 가족생활주기, 노부모와의 동거 여부, 형제자매간의 서열 등등은 노인부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행조건들이다. 또한 사회경제

적 지위는 실제로 노인부양을 수행할 때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도구적, 서비스적 자원의 양과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노년기에 건강하지 못하여 가족구성원에게 수발을 의존해야하는 와병상태는 당연히 노년기의 많은 부분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활기회는 노년기 삶의 질과 경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1) 가족생활주기

먼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노부모 부양부담을 보면 성인자녀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부양부담감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김명자·김윤정, 1995; 김명자 외, 1996; 김경신·이선미, 1998). 특히 중년기의 부부들이 신세대의 부부들보다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²⁾ 이는 중년기에 접어들어서 노부모도 노쇠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자녀에게 보다 의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년기 부부 중에서도 남편보다는 아내가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협공 받는 세대(sandwich generation)라는 가족생활주기상의 위치 때문이다. 시부모와 자녀의 중간에서 두 세대 모두에게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주부양자로서의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다(송현애·이정덕, 1995). 또한 중년기 주부의 과중한 부양부담 인지도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인한다. 노인을 부양하는 서비스의 분담은 주로 문화적 정의에 따른 성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아들에게는 정서적 지지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고, 딸이나 며느리에게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이나 시중드는 도구적 서비스를 기대한다(김명자 외, 1996).

한편으로 중년기 부부들이 항상 부양부담감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중년기부부는 부양부담감과 동시에 부양보상감도 신세대 부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

2) 여기에서 중년기 부부는 주로 40대에서 50대 초반의 부부(40-55세)들을 말하고 신세대 부부는 35세 이하의 부부를 뜻한다(김경신·이선미, 1998; 김명자·안선영·한정화, 1996).

타났다(김명자 외, 1996).³⁾ 이러한 보상감은 노부모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며 자기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되고 인생의 어려움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시킨다(김명자 외, 1996). 이러한 결과는 자식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중년기는 개인적으로 좀 더 인간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시기로서 노부모 부양에서 오는 실질적인 경험으로 인해 노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할취득(role-taking)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김명자 외, 1996).

그러나 부양보상감이 노부모 부양에서 오는 죄책감을 낮추어 주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죄책감은 중년기부부와 신세대 부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내보다는 남편의 죄책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자 외, 1996; 김경신·이선미, 1998). 부모에 대한 애착과 의무감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보다 더욱 많이 느끼고, 따라서 부모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느낌과 노부모를 모시지 않은 경우에 죄책감은 남편이 아내보다 크다(김명자 외, 1996; 김경신·이선미, 1998). 이런 결과는 가족의 생활주기에 관계없이 아직도 전통적인 부모공경의식을 강조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가족주의 가치관과 같은 전통적인 사고는 부부의 나이가 젊을수록 그 영향력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죄책감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으로써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 출생순서

가족내의 위치가 장남인가 혹은 맏며느리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인지하는 부양부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장남과 맏며느리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부모 부양분담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남의 경우, 노부모에게 직접 행하는 부양서비스 중에서 접촉과 도구적 부양에 있어서 그 외의 다른 형제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경제적 부양과 관련된 지출이나 심리적 부양부담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강유진·한경혜, 1997; 김경신·이선미, 1998).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우리 가족문화에서 차지하는 장남의 특별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 도구적, 서비스적 부양의 빈도 수는 장남이 다른 형제들보다 비슷하거나 적을지 몰라도, 물질적 도움을 드리는 경제적 부양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도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부양의 대처전략을 결정하는 일과 주로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심리적 부양부담은 장남이 다른 형제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3) 주부양자

서구에서는 딸이 주부양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의 가족문화에서는 실질적인 주부양자의 역할은 며느리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은 결혼하면 출가외인이 되어 시가의 대를 잇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 주는 함의점은 매우 중요하다. 주부양자가 며느리라는 사실은 자식이 보은이나 사랑보다는 의무감이나 희생정신이 부양의 주된 원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김미경, 2000). 즉, 남편의 부모에 대한 며느리로서의 도리나 희생정신이 현대의 '효'의 기반을 이루고 노인부양의 명맥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미경, 2000). 따라서 노인부양의 자발적인 성격은 약해지고, 직접 낳아주신 부모보다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전가는 노인부양을 둘러싼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김상욱, 2000; 김미경, 2000). 또한 윤가현(1998)은 치매노인을 부양하는데 있어서 며느리가 차지하는 주부양자의 위치는 다른 가족구성원 특히 친지들과 부양전략을 세우는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⁴⁾ 유사한 맥락에서 주부양자의 위치는 가족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가 주부양자의 역할을 하는 대학생들은 부모, 친척들과의

3) 부양보상감은 부양자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가족의무와 도덕적 원리를 충족시킴에 따라서 느끼게 되는 만족감을 의미한다(김명자 외, 1996, p.4).

4) 권중돈(1997)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힘든 노인부양 형

관계에서 지각된 갈등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이광혁 외, 1998).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가 건강한 상태이건, 와병상태이건 관계없이 높게 나타나며, 동일하게 조부모를 부양하는 미국대학생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이광혁 외, 1998). 이러한 파급효과는 노인부양의 역할을 분담하지 않고 주부양자에게 일임하기 때문에 일어나며, 가족간에 갈등의 해결을 위한 대화통로가 잘 확립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제시해준다(이광혁 외, 1998).

며느리가 주부양자의 위치를 차지할 때 부양부담감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부양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인단독가구에서 할아버지를 부양하는 할머니와 시부모님을 부양하는 며느리와 부양스트레스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며느리들은 부양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사용하지 못하였다(이영자·김태현, 1992). 부양자의 역할을 맡은 할머니들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현재중심적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하지만, 며느리들은 과거에 즐거웠던 시간을 생각하거나 피부양자에 대해 고마웠던 일들을 회상하는 과거 중심적 대처방안에 더욱 의존하였다(이영자·김태현, 1992). 이런 경향은 며느리가 할머니만큼 노인의 상태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대처방안의 선택에도 미숙한 결과를 초래한다(이영자·김태현, 1992). 결국, 며느리가 노인부양의 주부양자의 위치를 차지하여도 부부중심의 양성평등의 가족문화가 확립되지 않는 한, 부부관계를 비롯하여 가족구성원들간에 노부모부양을 둘러싼 갈등의 가능성은 항상 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자녀와의 동거여부

일반적으로 성인자녀들은 노부모와 동거 할 때 더욱 부양부담을 느낀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단독가구노인들이 자녀동거 노인들보다 학력, 경제적 수준, 배우자 생존율에서 앞서기 때문이다(강유진·한경혜, 1997). 즉,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생활기회에서 유리한 위

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비동거 자녀들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동거 자녀들도 노부모 부양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리적 근접성"으로서, 자녀와 부모가 가깝게 살수록 더 많은 접촉, 경제적 부양, 도구적 부양을 제공했다(강유진·한경혜, 1997). 이 결과는 노부모를 동거하면서 부양하지 않더라도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상당수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결과는 수정확대가족도 자녀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확대가족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노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있어야 하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실현가능성이 더욱 높다.

노부모와의 동거는 자연적으로 이에 따르는 비용과 혜택을 가져오므로, 그 영향을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하였다. 교환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노인의 부양부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상호교류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다. 즉 동거가 항상 노부모 부양의 부담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다. 기혼자녀가 노부모와 동거하는 이유가 경제적 도움을 얻고 손자녀 돌보기 등 서비스적 도움을 받는 것 때문이라면 부모와의 동거에 따르는 혜택을 많이 인지한다(윤순덕·한경혜, 1994). 이와 더불어 며느리가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취업한 경우와 부모-자녀관계가 비전통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동거만족도는 높아진다(이숙현·손승영, 1992). 그러므로 아내가 취업을 하고, 노부모로부터 받는 혜택을 많이 지각할수록, 며느리의 동거만족도는 전업주부보다 높고 노부모와의 관계도 좋은 편이다(이숙현·손승영, 1992; 조병은, 신화용, 1992).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제한적으로 성립된

태의 하나인 치매노인을 부양하는데 있어서도, 며느리는 전체 주부양자의 42.7%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딸(22.3%)과 배우자(21.4%)가 주부양자의 위치를 차지한다(권중돈, 1997, p.127).

다. 맞벌이 가족이며 노모가 건강하여 손자녀를 돌보아 줄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동거만족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거가 전통적인 부모부양의 규범적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거나, 부모-자녀관계가 나쁘고, 결혼만족도가 낮은 가운데 이루어질수록 노부모와 동거에 따르는 비용은 더욱 많이 느끼게 된다(윤순덕·한경혜, 1994). 또한 노인의 개인적 자원도 동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 경제력이 취약한 경우와 같은 개인적 특성은 노인의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동거만족도를 감소시킨다(윤순덕·한경혜, 1994).

이신숙과 서병숙(1994)은 동, 별거하는 며느리와 노모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며느리들이 노모를 보살피는 자녀의 책임 등을 강조하는 규범적 유대를 받아들일수록 부양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의 중요한 측면은 노모를 부양하는 의무감이 적고 정서적 친밀감도 낮으며, 노모의 의존이 과다할 때에는, 비록 노모와 별거하더라도 부양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이신숙·서병숙, 1994).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노부모 공경사상으로 인해 노부모와 떨어져 살아가도 잘 부양하지 못하면 자식으로서 불안과 죄의식이 스트레스를 낳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신숙·서병숙, 1994). 따라서 며느리와 노모간의 관계의 질이 저하되거나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노모와의 비동거는 부양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 못한다.

성인자녀와의 동, 별거는 농촌노인과 기혼여성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농촌노인은 자녀들이 취업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녀와 떨어져 살기 때문에 도시노인보다 정서적 부양을 자녀에게 더욱 의존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서병숙·이신숙, 1991). 한편으로 시부모를 모시는 농촌의 기혼여성은 정서적 부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아직 남아있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력과 농촌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서병숙·이신숙, 1991).

2) 사회경제적 지위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노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 부양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부양부담이 커지는 관계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런 경우 노인의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나 기대감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은주·김태현, 1994). 부양부담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부모와 동거하거나 가까이 사는 만며느리가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이 가장 높다(김명자·김윤정, 1995).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부양부담의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기혼자녀들 보다 높은 노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노인의 경제력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의사결정권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더 나아가 노인의 경제력은 성인자녀의 실제 부양수행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노부모가 소득이 높고 잘 살수록 자녀의 부양부담은 감소한다. 즉 자녀가 제공하는 경제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은 줄어들고, 노부모와 자녀간의 더 많은 접촉을 초래한다(강유진·한경혜, 1997). 반면 노인의 경제력은 며느리의 부양부담을 더욱 감내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재산이 상속될 것이라는 예상은 며느리의 부양태도를 더욱 전통적으로 이끌며 부양수행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한다(김상욱, 2000). 그러므로 노인의 경제력은 상속과 관련하여 성인자녀들이 노부모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자원이자 통제수단이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부모는 경제적으로 자립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한은주와 김태현(1994)의 연구에서 노인 스스로 생활비 마련하는 비율이 56%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조병은과 신화용(1992)의 연구에서도 노모의 2/3가 수입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⁵⁾ 이러한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

5) 199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의 65세 이상 노

은 노인부양을 근본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생활기회와 관련된 요인이다. 따라서 노인부양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생활보호와 자활대책이 필요하다.

3) 와병상태에 따른 부양부담: 치매노인의 경우

신체적, 인지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부양하는 가족은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노인부양 부담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최혜경의 4명의 연구(1999)에서는 신체적, 인지적 장애를 가진 취약노인들은 부양 서비스를 세분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주부양자들은 신체적, 인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이미 부양 스트레스를 느낀다.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주부양자가 가장 빈번하고 심각하게 느끼는 부양부담은 노인-주부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 건강상의 부담, 그리고 사회적 활동제한이다(권중돈, 1997). 구체적으로는 주부양자는 치매노인을 부양할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거나 부양하는 것이 지겹고, 종종 부양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치매노인과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피로와 수면부족을 자주 느끼는 것이 건강상의 부담이며, 부양자의 자유시간이 부족하고,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등이 치매노인을 부양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활동제한이다(권중돈, 1997).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치매환자는 가족이 전적으로 수발하는 임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친척들의 도움도 평소에 거의 기대할 수 없으며, 간혹 환자의 사별 후 친척들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김태현·전길양, 1995). 실제로 치매환자를 수발하는 며느리를 면담한 결과, 며느리들은 주위의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김희경·윤가현, 1996). 이것은 며느리 스스로가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을 주위의 친구나 친척이 직접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며느리의 처지에서 타인들에게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가족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어려움을 토로하기를 기피하는 경향

때문이다(김희경·윤가현, 1996). 이러한 결과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구성원들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제시해준다.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을 직접 면접하여 연구한 권중돈(1997)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중한 부양부담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요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가 이중적인 요구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치매노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히 부양자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증가한다.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이러한 의존성 증가라는 1차적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이에 더하여 2차적 변화에 적응해야한다. 이러한 2차적 변화는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역할구조의 변화, 가족생활 패턴의 변화,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 축소 등이다(권중돈, 1997). 이 두 가지 변화 모두에 직면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하기를 요구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두 번째 부양부담의 주된 요소는 주부양자가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맡는데서 오는 어려움이다. 주부양자는 대체로 몇 개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예가 주부양자이면서 동시에 주된 가사담당자이며 가족을 부양하는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다(권중돈, 1997). 이러한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40.8%를 차지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직업을 가져서 네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전체의 11.7%나 되었다(권중돈, 1997).

최혜경, 김윤정(1997)의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부양상황에서 부양부담감이 증가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양스트레스의 누적적인 순환과정을 지적하고 있는데, 치매환자를 부양하면 할수록 부양자원(가정소득,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 도구적 지지)이 제한되거나 혹은 한정된 부양자원이 고갈되어 더욱 더 부담을

인 25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동거 자녀로부터 경제적 보조를 받고 있는 노인은 66.3%이고, 동거자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노인은 23.3%이다(정경희 외, 1998). 따라서 89.6%의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57.8%나 되었다(정경희 외, 1998).

느끼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주부양자의 배우자에 의한 지나 오랜 부양에서 오는 경험은 부양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김윤정·최혜경, 1993). 하지만 이러한 완화효과는 치매 노인의 기능장애(ADL능력)에는 적용이 되지만, 인지장애가 심해질 때는 사라지게 된다(김윤정·최혜경, 1993). 권중돈(1997)은 부양부담과 일상적 부양과업 수행상의 애로라는 개념을 구분하여 부양부담에 대한 한층 더 선명한 분석을 보여주었다.⁶⁾ 치매노인의 인지장애와 문제행동이 증가하면, 이와 더불어 부양과업상의 애로가 증가하게 되어, 결국 부양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치매환자의 부양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규범과 효 의식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가사를 돌보는 일을 당연히 여성, 며느리에게 일임해 버리는 문화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윤가현, 1998). 그리고 우리 나라의 가족 문화의 특성상 “2차적 부양자”가 존재하는데 며느리이외에 별거 딸, 동거 아들, 동거 딸 등의 가까운 가족으로 구성된다(이영숙 외, 1999). 그러나 부양 부담의 협조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오히려 2차적 부양자의 역할은 역기능적이 된다. 며느리들은 2차적 부양자와 빈번한 접촉의 과정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비평과 간섭으로 해석되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영숙 외, 1999; 윤가현, 1998). 가족관계에 의한 많은 접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며느리의 경우 이러한 사실이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부양부담이 큰 가운데서도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부양자들이 기대하는 교육적 효과 때문이다.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다수의 부양자들은 자기 자신도 늙어서 만약 치매에 걸릴 경우, 자녀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다고 응답한다(윤가현, 1998). 둘째는 노인 치매환자를 무조건 가정에서 보호해야 효를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의식과 치매를 수치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이다(이영숙 외, 1999; 윤가현, 1998). 여기에서 전통적인 효 의식이

노인을 부양하는 성인자녀에게 얼마나 뿌리깊게 내면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러한 내면화된 의식은 부양에 대한 의무나 책임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부양부담을 증가시킨다.

IV. 요약 및 논의

앞에서 살펴보았던 노인 부양에 대한 선행연구는 여러 가지 합의점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합의점은 실천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첫째, 1990년대의 노인 부양의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는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양부담은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존재하며, 중년기 부부나 신세대 부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양부담감을 느낀다.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서비스나 도움을 주지 않는 한, 부양부담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덧붙여 젊은 세대들은 갈수록 시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경향이 늘고, 사회복지적인 대책은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 부양은 가족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⁷⁾

두 번째 선행연구는 노인의 생활기회를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원소유여부는 노인부양부담과의 상호작용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6) 여기서 부양부담은 부양의 결과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불편감을 의미한다. 반면, 일상적 부양과업 수행상의 애로(hassle)는 치매노인 부양과정에서 겪게되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즉, 인지기능장애, 문제행동, 일상생활동작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양과업(caregiving tasks)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어려움을 나타낸다(권중돈, 1997, p.85). 이러한 애로의 구체적인 예는 일상생활동작능력과 관련하여 세탁 양과 빈도 증가, 대소변 수발, 청소회수 증가 등이다. 인지장애 및 문제행동과 관련된 애로의 예는 말을 지어내어 괴롭히거나 의심받는 경우이다.

7)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여성 7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93.4%가 결혼 후 시부모를 모시지 않고 따로 살겠다고 대답하였다(동아일보, 2001. 5. 7).

노인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배우자의 존재여부, 그리고 경제력과 같은 자원이 비교적 많을 때, 성인 자녀가 인식하는 부양부담은 적다. 일단 노인의 자원과 경제력이 풍부할수록,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비동거는 촉진된다. 더욱이 노인이 경제적으로 자녀를 지원해줄 때에는, 실제로 발생하는 부양부담과 부양자가 수행하는 부양의 양에 관계없이 성인자녀가 인식하는 부양부담은 적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이 처해있는 생활기회가 노년기 삶의 질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실제 예라고 하겠다. 동시에 노인의 자원과 부양부담과의 관계는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해준다.

세 번째, 효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은 실제적인 노인부양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효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규정된 의무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회윤리의 하나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모시는 가에 상관없이 효의식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선호도 편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동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특히 교육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젊고 여자일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떨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미래에 노인부양은 점점 더 힘들어지며 이제 사회와 노인 본인이 함께 노후생활을 책임져야한다는 사실을 제시해준다. 요약하면 실제로 노인을 부양하는 실천은 효의식이 아니며 가족주의 가치관에 동의할수록,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며느리가 주부양자가 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보은으로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효도의무 준수)이나 희생정신에 의한 것이다(김미경, 2000).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에 의해서 형성된 시가와의 관계라는 점은 며느리의 부양자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신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노인부양을 둘러싸고 가족구성원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 번째, 동거, 별거가 부양부담에 미치는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다. 성인자녀들은 노부모와 비동거에도 부양부담감을 느낀다. 동거일 경우에는 신체적, 경제적 부담, 그리고 부양스트레스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비동거일 경우에는 죄책감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죄책감은 노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데 대한 것이며, 장남일수록 그리고 남편일수록 더욱 많이 느낀다.

여섯 번째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있어서 부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에 따른 보상감도 존재한다. 부양보상감의 존재를 밝혀낸 것은 선행연구의 성과이지만, 그러나 부양보상감이 노인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부양보상감은 교육적 효과, 자식으로부터 미래에 부양을 받는다는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심리적 만족감이 주된 요소이다. 그러나 부양보상감을 느낀다고 해서, 실제 노인을 부양하는 수행이나 서비스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계가 노인부양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선행연구의 중요 성과와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공통적인 지적은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이제 부양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노인복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탈시설화' 이념은 재고되어야한다. 탈시설화 이념에 의하면, 노인보호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노인들은 가족이 돌보는 재가복지로 돌아가자는 주장인데, 이는 우리 한국 가족의 현실에 맞지 않는 이념이다. 노인부양의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노인 부양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이미 상당히 지쳐있고 부양부담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서 가족 부양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정교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없이, 다시 가족의 부양자원을 활용하는 탈시설화를 주장해서는 우리의 가족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선부른 주장이다.

탈시설화는 선진국의 경우,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노인을 돌보는 수용시설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전재일 외, 2000). 이러한 탈시설화 이념의 출현배경은 다분히 서구 사회의 과도한 개인주의에 대한 반발에서이다. 개인

주의가 팽배한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모든 일은 풀려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보편적이다(Bellah, 1998). 이러한 개인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노인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고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을 띠게 된다. 탈시설화는 이러한 과도한 개인주의에 반발하여 시설보호에서 가족의 보호와 돌봄으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다.

물론 재가보호는 노인부양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질병과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노인 서비스와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지역을 순회하며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보호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이다.⁸⁾ 그러나 우리 나라의 노인부양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시설보호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노인 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선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소수의 생활보호대상 노인들만이 혜택이 가능하며 진작 다수의 빈곤 노인들은 수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김수영, 2001).⁹⁾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도 노인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노인부양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노인부양을 가족에서 지역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건강한 노인들도 여가선용을 하고, 와병상태의 노인들도 돌볼 수 있는 다목적 노인센터(multipurpose senior center)의 건립과 운영이 그 예이다(모선희, 1995). 동시에 지역을 순회하며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병행하는 지역사회중심 접근을 의미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서로 다른 보호유형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노인복지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는 또한 현실적인 기대수준도 필요하다. 다목적 노인센터에서는 가족의 모든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간의 정서적지지 기능은 원래 고유의 가족 기능이므로 가족에게 맡기고,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도구적, 서비스적 지원을 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생활기회와 같은 사회적 조건, 주부양자가 며느리가 되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 그리고 효도와 같은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오는 압력 등이 노인부양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또한 노인부양은 도덕적 정당성에 있어서 우월하지만, 노인부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나 노인이 와병상태에 있을 때에 주부양자는 노인부양을 사회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문화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부양은 도덕적 권고의 성격은 희석되고 노인부양의 의무적 성격만 남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부양은 가족구성원이나 부양자에게 기본적인 도덕성과 현실적 어려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서 더욱 과중한 부담으로 인식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노인부양은 이제 전통적인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가 그 일부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효 이데올로기와 혈연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노인부양은 부양자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관점에서 고려해보아야 한다.

가족구성원만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부양자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 자체와 그 구성원들도

8) 이러한 재가보호의 구체적인 예는 가정간호사 및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이동목욕 서비스, 그리고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이다.

9) 예를 들어, 치매환자의 경우를 보면,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시설인 치매 전문요양시설은 2001년 2월 현재 39곳으로 한곳이 50-100명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략 전국적으로 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5월 현재 치매환자는 전국적으로 29만 4000명 정도로 65세 이상 노인의 8.3%가 앓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동아일보, 2001. 5. 30.) 그러므로 치매환자의 1.36%만이 보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실정이다.

노인부양을 담당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개별적인 가족도 만나거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사회의 다른 가족과 구성원들의 도움으로 성장하게 된다(Etzioni, 1996). 사회 속의 구성원은 다른 사회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였고, 이러한 상호관계성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노인부양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노인부양의 개념을 공동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노인부양을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식간의 관계로만 한정하여 보지 말고, 사회 혹은 지역사회가 기성세대에 대하여 보여주는 하나의 봉사과 복지의 차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현상은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인하여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가족들에게 가족만이 유일한 안식처이고 가족만을 위한 가족이기주의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가족 중심주의는 기존의 효 의식과 더불어 노인부양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가족구성원의 희생을 요구하는 과중한 부양부담을 초래하였으며,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상의 위치는 노인부양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노인부양의 문제를 지역공동체에서 협동적으로 풀어 가는 관점을 경시하게 만들었다.

이제 노인부양은 하나의 사회제도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노인부양을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지역사회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주체가 되는 분담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장 좋은 예는 건강한 노인에서 와병상태의 노인을 보호하고 서비스하며 거동불편 노인에게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다목적 노인센터의 설립과 운영이다. 노인부양이 제도로서 시행되어야 하는 그 첫 번째 당위성은 가족의 과중한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또 다른 당위성은 노인부양은 이미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노인부양은 신체적 노화의 이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에

서부터 여가시간 활용, 그리고 노인교육과 같은 자아실현의 영역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와 더불어 노인부양은 장기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노인 개개인의 성격적 특성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부양은 한 가족이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어려우며, 충분한 전문성과 사회적 배려에 기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하나의 사회복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노인과 가족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길이다.

■ 참고문헌

- 강유진, 한경혜(1997). 비동거 자녀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1), 271-288.
- 김기순, 유영주(1994). 기혼여성의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와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209-219.
- 김경신(1997). 부양 및 효에 관한 노인의 가치관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6, 51-66.
- 김경신, 이선미(1998). 중년부부의 노부모부양부담과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93-106.
- 김명자, 이윤정(1995).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부담 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25-137.
- 김명자, 안선영, 한정화(1996).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97-110.
- 김미경(2000). 노인복지에 대한 가족사회학적 접근: 노인부양문제를 통해 본 노인복지와 여성복지의 관계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34, 65-84.
- 김상욱(2000). 재가노인부양의 태도 및 행위(Ⅲ):인과 경로모형의 개발 및 추정. *한국사회학*, 34, 1037-1067.
- 김송애, 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기혼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 김수영(2001). 한국지역사회 노인보호의 과제와 전

- 망. pp.257-269. 김수영·성명옥·김경호·조충용(공저).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서울: 양서원.
- 김윤정, 최혜경(1993). 치매노인의 장애기간과 부양자의 대처자원이 부양자의 부담 및 부양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2), 63-83.
- 김태현, 전길양(1995).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1), 15-27.
- 김희경, 윤가현(1996). 치매노인 및 정상노인 부양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의 비교. 한국노년학 연구, 5, 107-129.
- 김혜연, 김성희(1999). 노인의 부양유형과 선호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2), 85-97.
- 권중돈(1997). 한국치매가족연구: 부양부담 사정도구 및 결정모형개발. 증보판. 서울: 흥익제.
- 모선희(1995). 농촌의 노인문제와 대책. 박재간 외(편).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출판, 401-419.
- 박재홍(1991). 한국 사회의 노인문제: 교환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5, 1-19.
- 서병숙, 장선주(1990). 노부모와 기혼 자녀간의 생활교류연구: 아들 동거노인과 딸 동거노인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8(3), 171-186.
- 서병숙, 이신숙(1991). 농촌 기혼여성 노부모 부양의식과 부양수행도. 한국노년학, 11(2), 191-211.
- 서선희(1998). 한국적 효 개념의 특수성. 한국노년학, 18(3), 142-154.
- 성규탁(1989). 현대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9, 28-43.
- 송현애, 이정덕(1995).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15-124.
- 이광혁, 하현옥, 윤가현(1998).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의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과의 갈등. 한국노년학연구, 7, 129-140.
- 이숙현, 손승영(1992). 확대가족에서의 세대간 동거만족도 비교. 한국사회학, 26, 145-164.
- 이신숙, 서병숙(1994). 노모와 동·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결정변인 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29-139.
- 이은경(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 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45-65.
-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1999). 가족문제론. 서울: 학지사.
- 이영자, 김태현(1992). 노인부양자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할머니와 며느리의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12(1), 1-18.
- 윤가현(1998). 노인성 치매환자의 주부양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 및 부양부담감의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노년학, 18(1), 75-90.
- 윤순덕, 한경혜(1994). 도시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비용. 한국노년학, 14(2), 105-120.
- 전재일, 이성희, 김효원(2000).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탈시설화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정경희 외 5인(1998).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병은, 신화용(1992).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2), 83-98.
- 최혜경, 김윤정(1997). 한국치매노인의 부양상황에서의 스트레스 과정. 한국노년학, 17(1), 35-50.
- 최혜경, 문숙재, 정순희, 조진명, 김은경(1999). 부양서비스가 노인과 부양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9(1), 15-30.
- 최정혜(1998). 기혼자녀의 효 의식, 가족주의 및 부모부양의식. 한국노년학, 18(2), 47-63.
- 한은주, 김태현(1994).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 14(1), 95-116.
- 홍숙자(2001). 노년학 개론. 개정판. 서울: 하우.
- Bellah, Robert N. (1998). Community Properly Understood: A Defense of "Democratic Communitarianism". In Amitai Etzioni(Ed.), *The Essential Communitarian Reader*. pp.15-19. Lanhan,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Etzioni, Amitai (1996). *The New Golden Rule: Community and Morality in a Democratic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Giddens, Anthony (1980).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2nd edition. London:

Hutchison.

Ritzman, Rosemary L. & Tomaskovic-Devey Donald (1992). Life Chances and Support for Equality and Equity As Normative and Counternormative Distributive Rules. *Social Forces*, 70(3), 745-763.